

경북도서관 9월 북큐레이션

- 과거로 떠나는 랜선 여행: 조선시대 옛보기 -

어린이 도서

서명	청구기호
(어울리는 공간) 서울	아 981.1 누구나조 v.4
조선 경제 이야기	아 031 아이세아 22
조선 시대 양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 808.9 키다리키 56
조선 시대 옷장을 열다	아 082 우리고스 v.4
조선 신분, 그것이 알고 싶다	아 911 재미만웅 15

일반 도서

서명	청구기호
옛 그림으로 본 서울	911.6 최열옛
조선 금수저의 슬기로운 일상탐닉	911.05 안나미슬
조선 시대 삶, 풍속화로 만나다	653.11 윤진영조
조선시대 영어 교재: 아학편	740 정약용조
조선잡사	911.05 강문종조

경북도서관 9월 북큐레이션

- 과거로 떠나는 랜선 여행: 조선시대 옛보기 -

△ 어린이도서

서명	청구기호
(어울리는 공간) 서울	아 981.1 누구나조 v.4
조선 경제 이야기	아 031 아이세아 22
조선 시대 양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 808.9 키다리키 56
조선 시대 옷장을 열다	아 082 우리고스 v.4
조선 신분, 그것이 알고 싶다	아 911 재미만응 15

(어울리는 공간) 서울

■ 저	자	황 선 미
■ 출	판	사
■ 발	행	년
■ 청	구	기
호		아 981.1 누구나조 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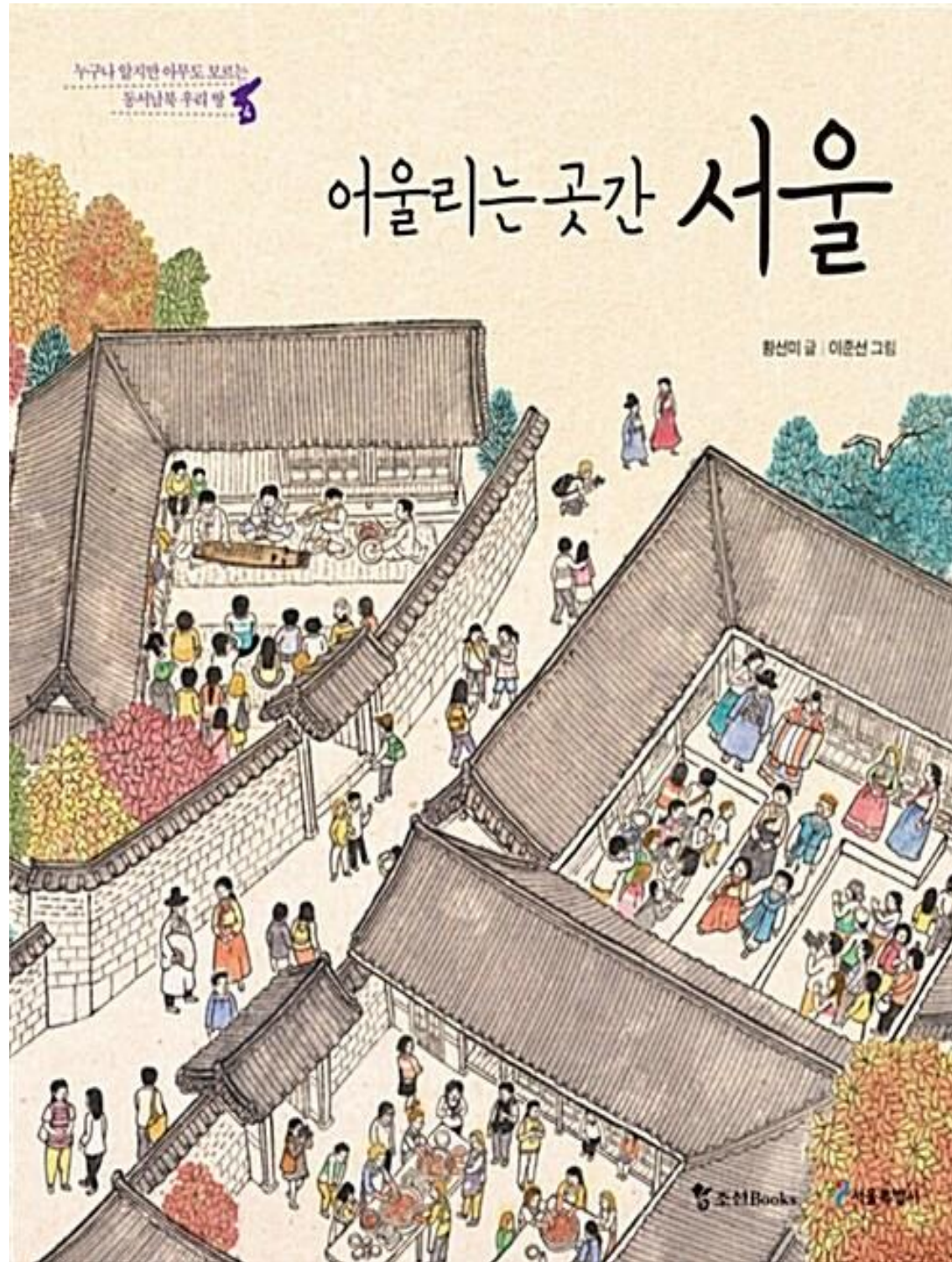
책 소개

“살아 숨쉬는 도시, 삶의 터전 서울로 떠나자!”

여러분은 북촌한옥마을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책의 주인공 미래는 북촌한옥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입니다. 미래의 집은 한옥체험살이를 운영하고 있어 늘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죠. 미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옛 것과 우리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함께 알아갑니다.

이 책은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유명한 저자의 책으로,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조선 경제 이야기

■ 저	자	서 선 연
■ 출	판	사
■ 발	행	년
■ 청	구	기
호		아 031 아이세아 22

책 소개

“이야기를 들으려면 돈을 한 푼씩 내야 하는데… 그래도 들어볼 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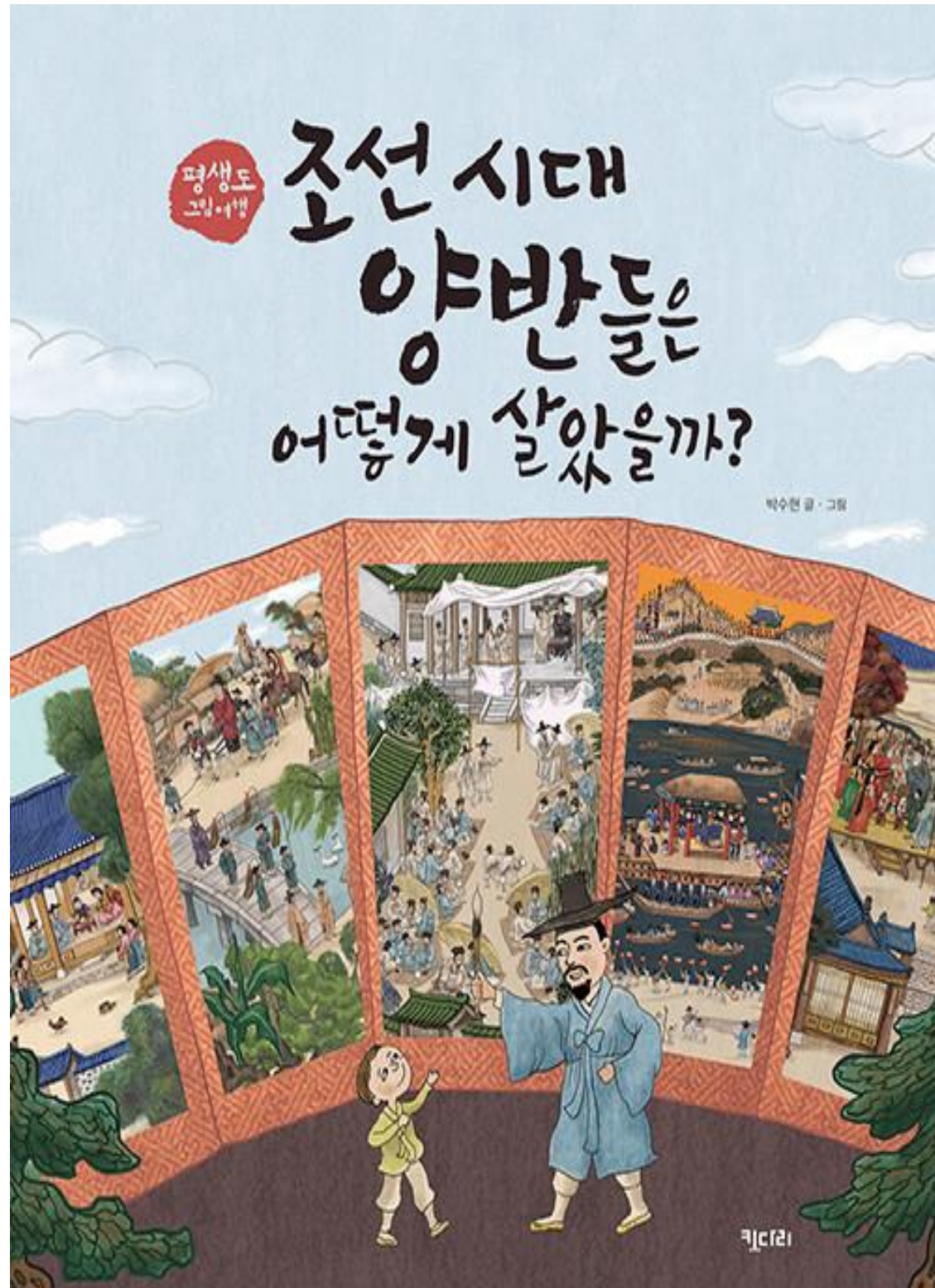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책의 주인공은 물건을 사고 팔며 돈을 버는 장사꾼이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장사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잘 버는 법을 알려준다는 한 노인을 만나는데요,

이 노인은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돈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조선시대 경제 활동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장사꾼과 함께 조선시대 경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세요. ☺



조선 시대 양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저	자	박 수 현		
▪ 출	판	사	키다리	
▪ 발	행	년	2021	
▪ 청	구	기	호	유 808.9 키다리키 56

책 소개

“나랑 같이 그림 여행을 떠나 볼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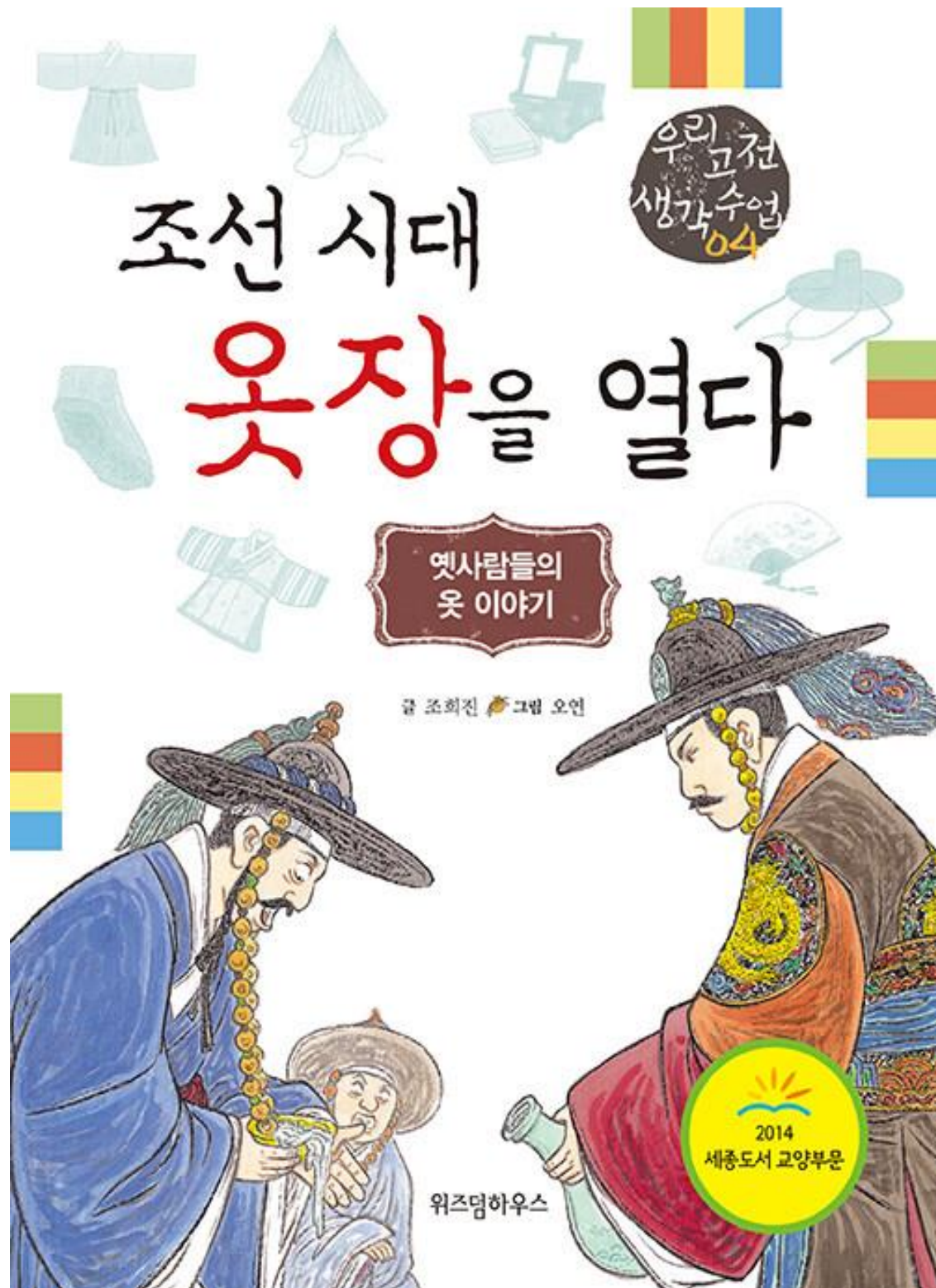
주인공 막동이는 박물관에서 그림을 보고 있던 중,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화가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화가 아저씨는 막동이에게 함께 그림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막동이는 과연 어떤 그림을 만나게 될까요?

이 책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삶과 소망이 담긴 평생도 그림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막동이와 함께 평생도 그림 여행을 떠나보세요. ☺



조선 시대 옷장을 열다

■ 저	자	조 희 진		
■ 출	판	사	위즈덤하우스	
■ 발	행	년	2017	
■ 청	구	기	호	아 082 우리고스 v.4

책 소개

“옷장 속에 역사가 숨어 있어요.”

옛 사람들의 옷차림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이 책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엄격했던 신분제도 속, 입는 옷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따라
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유행했던
소품이나 선호했던 스타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조선시대에는 어떤 옷들이 유행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패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



조선 신분, 그것이 알고 싶다

▪ 저 자	김 리 라
▪ 출 판 사	웅진주니어
▪ 발 행 년	2020
▪ 청 구 기 호	아 911 재미만용 15

책 소개

“조선시대 신분, 도대체 무엇일까?”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양반과 중인, 상민, 천민 등 나누어진 신분에 따라 생활이 전혀 달라졌지요.

이 책에는 각각의 신분에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4명의 등장인물과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반인 최윤후부터 중인인 김지만, 상민인 큰복이, 그리고 천민인 개똥이까지, 이들은 같은 하루를 어떻게 다르게 보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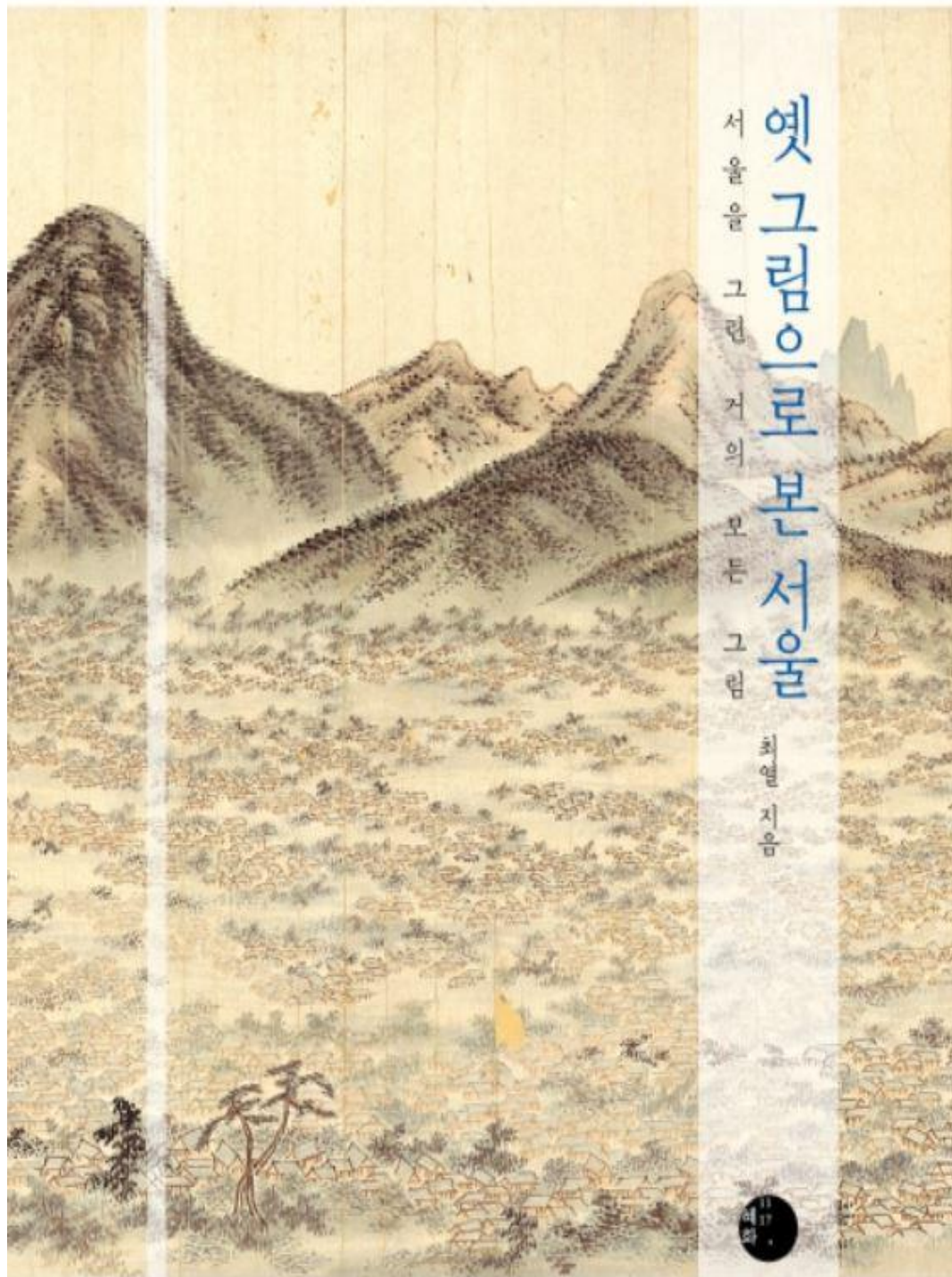
신분제도가 사라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분제도 속 생활 모습, 함께 알아보까요? ☺

경북도서관 9월 북큐레이션

- 과거로 떠나는 랜선 여행: 조선시대 옛보기 -

△ 일반도서

서명	청구기호
옛 그림으로 본 서울	911.6 최열옛
조선 금수저의 슬기로운 일상탐닉	911.05 안나미슬
조선 시대 삶, 풍속화로 만나다	653.11 윤진영조
조선시대 영어 교재:아학편	740 정약용조
조선잡사	911.05 강문종조



옛 그림으로 본 서울

■ 저	자	최 열
■ 출	판 사	혜화1117
■ 발	행 년	2020
■ 청	구 기 호	911.6 최열옛

책 소개

“서울, 햇볕 드는 큰 땅에 우리의 문명을 여노라”

이 책은 미술사학자 최열이 서울의 옛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책으로, 과거의 조선, 특히 서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울, 즉 한양은 햇볕이 드는 큰 땅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제는 남겨진 그림으로 밖에 만날 수 없는 과거 한양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보다는 사진이 더 익숙한 요즘 사람들에게 옛 그림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자의 글을 읽으며 그림을 보다 보면 어느 샌가 그림 보는 재미에 푹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한양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

조선 금수저의 슬기로운 일상탐닉

▪ 저	자	안 나 미
▪ 출 판 사		의미와재미
▪ 발 행 년		2021
▪ 청 구 기 호		911.05 안나미슬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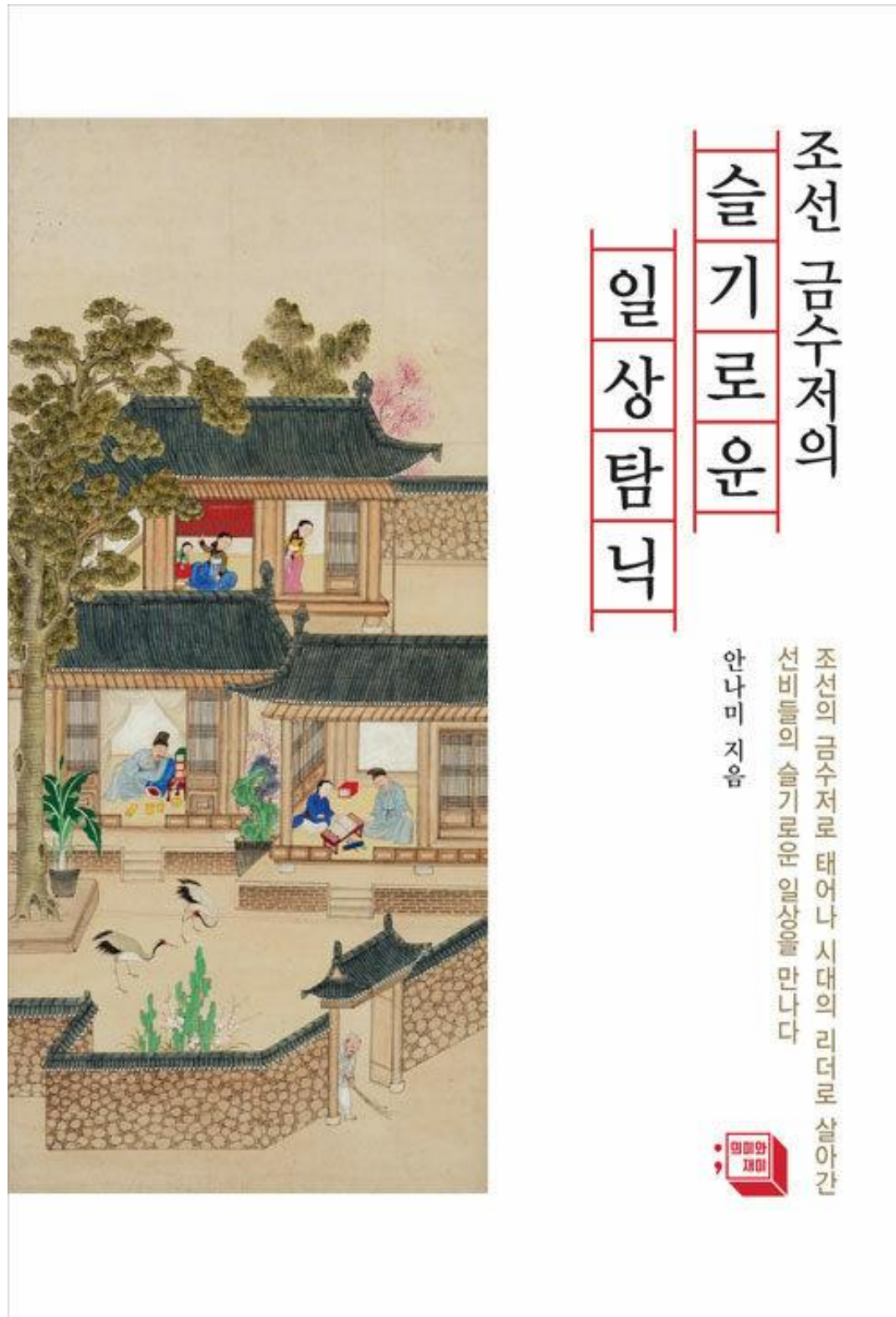
“선비들의 슬기로운 일상을 만나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일상생활은 어땠을까요?

이 책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역사적 기록과 함께 소개한 책으로, 저자는 조선시대 양반을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라는 신분 덕에 그저 편하게만 살던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리더로서,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양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먹던 음식은 무엇인지, 반려동물을 키웠는지, 시험에 대한 선비들의 생각 등 8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당시 금수저였던 선비들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선시대의 선비가 되어 저자와 함께 선비의 일상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





조선 시대의 삶, 풍속화로 만나다

■ 저	자	윤진영
■ 출판사		다섯수레
■ 발행년		2015
■ 청구기호		653.11 윤진영조

책 소개

“삶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그림, 풍속화”

이 책은 조선시대 엄격했던 신분제도 속, 신분에 따라 달라졌던 삶의 모습을 풍속화를 통해 보여주는 책입니다.

풍속화란 사람과 풍물이 있는 그림으로, 기록을 위한 궁중 기록화부터 일반 서민들의 생활모습이 담긴 풍속화까지, 특정 대상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전 계층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신분을 크게 관인, 사인, 서민으로 나누어 신분 별 사회 모습을 저자의 흥미로운 해설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풍속화도 이 책을 보신다면 아마 그림 속에 숨겨진 뒷이야기들이 궁금해 지실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들을 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조선시대 영어 교재:아학편

▪ 저	자	정 약 용
▪ 출	판	사
▪ 발	행	년
▪ 청	구	기 호
		740 정약용조

책 소개

“한 글자 아래 고금과 동서가 손바닥에 글을 보는 것과 같게 되었다.”

이 책은 다산 정약용이 지은 아동용 한자학습서 아학편을 1908년, 지석영과 전용규가 새롭게 편찬한 책입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였고 영어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했는데요, 이 때문에 영어공부의 열풍이 강하게 불었고 그 결과 이 책이 영어서적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지석영은 당시 중국어와 일어, 영어 등에 능통했던 전용규에게 한, 일, 영문의 주석을 붙이게 하여 이 서적을 간행했으며, 당시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국어로 표기한 책이라는 점에서 언어학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의 당혹감, 그리고 외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의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그 당시로 돌아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함께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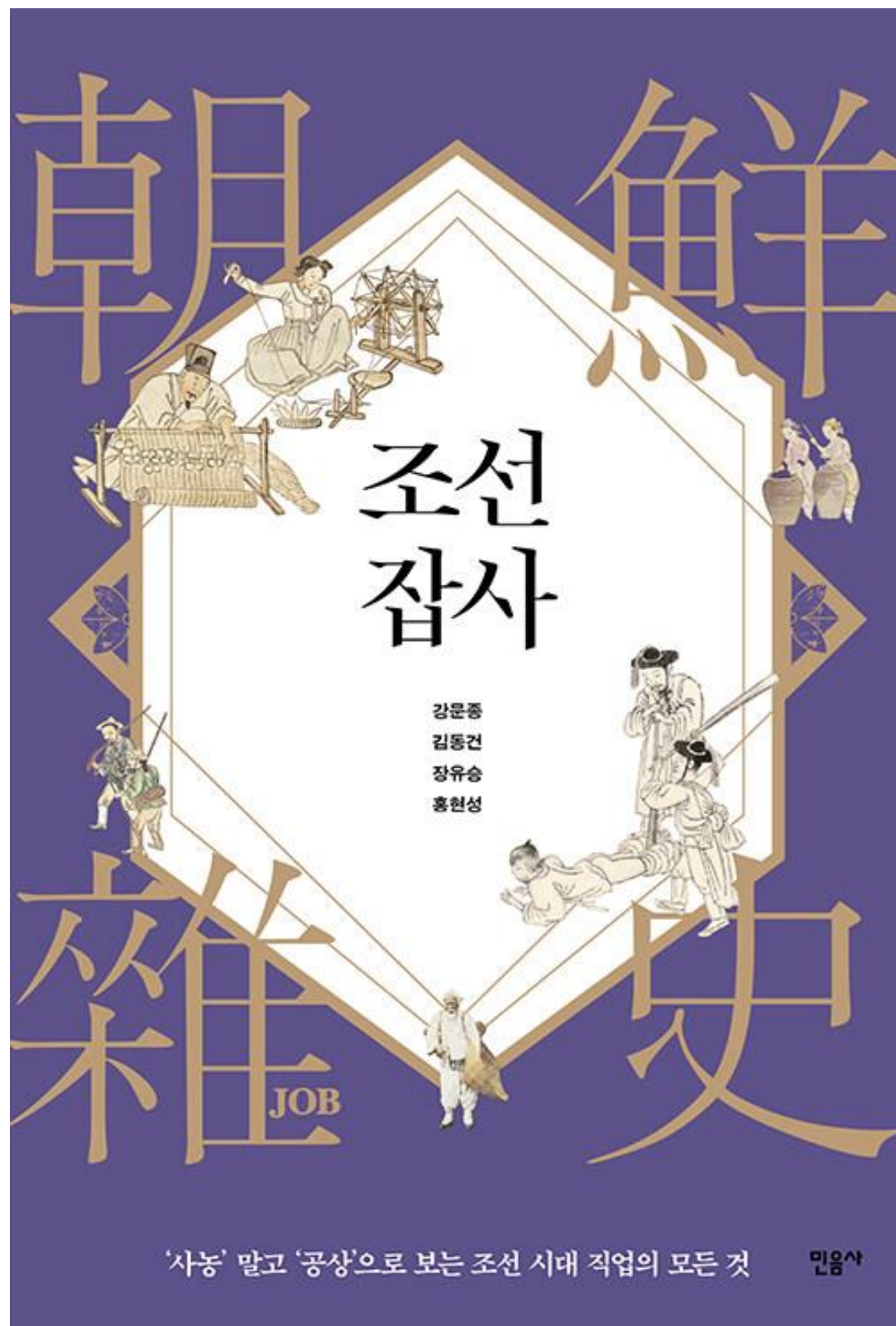
정약용이 바르고 지석영이 펴냈다

蔬	禾
Vegetable	Rice
배추	벼
學	編
Learn	Book
배우	책

배추타불
으라이쓰
을러언
썬크

지금보다 정확한 영어발음의
조선시대 영어교재, 아학편





조선잡사

■ 저	자	강 문 종
■ 출	판	사
■ 발	행	년
■ 청	구	기
■ 호		911.05 강문종조

책 소개

“『조선잡사』는 ‘잡(job)’의 역사이며, ‘잡(雜)’스러운 역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조선 시대에 있었던 직업을 주제로 당시 존재했던 67가지의 직업과 각 직업에 얹힌 일화를 정리해놓았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엄격했던 당시 여성이 생계를 위해 가졌던 다양한 직업부터 현재의 3D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극한 직업,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직 등 다양한 주제로 묶어 소개하고 있으며, 각각의 직업에 얹힌 일화도 흥미롭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직업도 많지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직업들이 있죠. 아마 과거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의 숨겨진 직업의 세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